

제14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팡파르

25일 5·18민주광장 무대
최종 8팀 본선 진출 영예
대상에 1000만원 등 시상
시민 체험부스 운영 다채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이했던 2010년, 그해 5·18민주항쟁기념행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제1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가 열렸다. 민주, 인권, 평화로 대표되는 오월정신을 광주뿐 아니라 전국 음악인들의 목소리로 무대 위에서 기록하고자 한 것.

매년 행사 때마다 꾸려졌던 오월창작가요제 조직운영위원회는 2018년 8회 행사 때부터 사단법인 '오월음악'으로 확대됐고 박문옥, 김원중, 박

종화 등 광주 대표 민중가수들과 함께 노래로 광주의 오월을 기억했다.

특히 광주의 5·18에만 경계를 두지 않았다. '오월정신'을 토대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기후위기 등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다양한 노래들이 출품됐다. 오월 창작가요제는 매년 400여 팀이 지원, 정밀아(무명), 스트릿건즈(꽃이 저서야 봄인 줄 알았네), 중식이밴드 등 걸출한 음악인들을 배출하며 광주 대표 음악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로 제14회를 맞이한 전국 오월창작가요제가 '또다른 두근거림의 오월'라는 주제로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5·18민주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날 본선 무대에서 총 8팀이 승부를 가른다. 특히 관객과의 경계를 허문 원형 무대를 통해 광주시민들과 더 가까워진 공연을 열겠다는 포부다.

올해 오월창작가요제는 총 114곡이 접수됐으며, 앞서 서류와 음원을 기반으로 1차 심사를 진행, 총 15곡의 2차 예선 진출곡을 선정했다. 지난 11일에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지홀에서 진행된 2차 예선을 통해 실연 심사가 진행됐으며, 총 15인의 심사위원단 심사 결과 최종 8팀의 곡이 본선 진출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본선 무대에 오르는 8팀은 허정혁, 양산동 호랭이, 우나, 삼점일사, 은별밴드, 풀잎이슬, 몽글, 노을랑이다. 심사위원들은 '시대정신', '자유와 저항의 노래', '5·18의 기억과 정신', '공동체 정신', '삶과 사랑의 노래' 등을 기준으로 삼고, 어떻게 새로운 감각으로 5·18의 가치를 풀어내고 일상에 적용했는지를 살펴 본선 진출곡을

선정했다.

허정혁은 서로의 마음에 불을 켜 밝혀주기를, 세상이 더 환해지기를 꿈꾸는 '촛불이 켜지면', 양산동 호랭이는 현 시대를 블루스 음악에 맞추어 풍자한 곡 'My Love Highway', 우나는 "만약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면?"이라는 물음을 던지며 현재를 사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지구멸망?', 삼점일사는 세상의 편견과 걱정을 타파하고 무모하지만 명확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자 하는 '돈키호테', 은별밴드는 자유와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 헌신했던 분들의 날을 기억하고자 한 '그날을 피운다', 풀잎이슬은 각자의 이유로 날개를 달지 못하고 펼치지 못했던 많은 꿈들을 응원하며 만든 곡 '오월의 날', 몽글은 평온한 일상에서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맞서 버텨낼 수 있도록 노래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노을랑은 고된 노동에 대한 육신의 고달픔과 영혼의 메마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노래가 필요해'를 부른다. 무대에 오르는 8팀은 경연 참가곡 외 개별곡도 선보인다.

경연팀 이외에도 제8회 가요제에서 '무명'으로 대상을 수상한 정밀아, 제13회 가요제에서 'Black Bird'로 금상을 수상한 레드클라인이 무대에 올라 축하공연을 연다. 당일 5인의 전문심사단과 120명의 청중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대상 1000만원(1팀), 금상 500만원(1팀), 은상 300만원(1팀), 동상 200만원(1팀), 장려상 100만원(4팀)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오월 대동 세상을 모티브로 해 높이를 낮춘 8개의 무대를 원형으로 배치했다. 마당을 상징하는 무대를 둘러싼 객석의 배치

를 통해 무대와 관객 간의 더 밀접한 소통을 시도하고자 했다. 부대 행사로는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드로잉 체험 부스와 오월을 향한 메시지를 적는 '5월은 우리의 나무' 부스 등 시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류의남 제14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총감독은 "다양한 음악으로 변주된 오월정신이 기대를 모은다"며 "음악을 통해 44년 전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기억하고 현재 국민의 소중한 일상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14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오월창작가요제 홈페이지(www.maymusicfesta.net) 및 인스타그램(@maymusicfest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국악뮤지컬 '토끼가 어떻게 생겼소'

25일 남도국악원 진악당
국악공간 '서이' 초청무대

국립남도국악원은 토요일상설공연 '국악이 좋다'에 국악공간 서이를 초청해 바다 환경보전 국악뮤지컬 '토끼가 어떻게 생겼소?'를 오는 25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선보인다.

국악공간 서이는 생태를 주제로 한국 전통문화예술을 한 무대에 모은 국악뮤지컬을 기획, 제작하는 단체다.

이번 공연은 평화롭고 깊은 바닷속, 맛있는 음식을 먹고 탈이 난 용왕님을 위해 토끼 간을 구하러 나선 자라가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라는 토끼 간을 구하기 위해 토끼를 찾아 나서는데 무엇인가 이상한 물건을 보게 된다. 과연 그 물건을 무엇일까?

'토끼가 어떻게 생겼소?'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개선과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해결해야 할 숙제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일반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국악 뮤지컬 공연이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오산초등학교(고군면) 거쳐 회동(신비의 바닷길)과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 참조 또는 장악과(061-540-4042)로 안내받을 수 있다.

도선인 기자

춤의 성소에서 만나는 남아시아 전통춤

ACC '남아시아 춤의 성소' 전시
7월 21일까지 아시아문화박물관
인도 힌두사원 춤 유적 등 조망

인도 힌두사원의 춤 유적지를 통해 남아시아 전통춤을 만나볼 수 있는 이색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오는 7월 21일까지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2에서 '남아시아 춤의 성소: 리미널 스페이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시로 인간과 신, 성(聖)과 속(俗)의 경계를 넘나드는 춤의 성소에서 남아시아 전통춤을 만나는 데 의미가 있다.

힌두 문화권에서 춤은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공양물로 힌두사원에서 춤이 펼쳐지던 성소(聖所)는 춤을 통해 신과 만나는 공간이자 해탈의 장이다.

전시는 ACC가 인문학적 담론 생산과 문화 지평 확장을 위해 아시아문화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연구자 방문프로그램의 초빙연구자로 선정된 최해리 박사(무용 인류학자)가 기획했다.

최 박사는 전시에서 본인이 참여한 ACC의 지난 2013년 수집사업 '아시아 대서사시 관련 공간·건축 문화의 가치 발굴과 자원수집'과 지난해 아시아문화박물관의 주제연구 보고서 '남아시아 전통춤'의 연구 성과와 아카이브 기증자료 등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힌두사원과 춤을 매개로



스리랑카 캔디안 댄스(손현철 기증)

관객들이 남아시아 전통춤을 접해 볼 수 있도록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지난 2013년 '아시아 대서사시 관련 공간·건축 문화의 가치 발굴과 자원수집'의 수집자원 중 춤의 성소가 포함된 함피(Hampi) 지역의 비루팍샤 사원(Virupaksha Temple), 비탈라 사원(Vittala Temple), 라마찬드라 사원(Ramachandra Temple)을 보여준다.

2부에서는 힌두문화에서 춤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시바와 '나티아 샤스트라'를 전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남아시아 전통춤에 관한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남아시아 춤의 원리를 담은 경전 '나티아 샤스트라'에 기록된 인간의 9가지 감정 '라사(Rasa)'와 표정, 그리고 손짓 언어 '무드라(Mudra)'의 시연 영상을 마

련했다.

3부 '남아시아 춤의 지형도'에서는 '나티아 샤스트라'의 동작, 의상, 음악 등의 요소를 담고 있는 인도의 8가지 고전무용, 방글라데시의 '칼리카치(Kalikach)', 네팔의 '라케(Lakhe)', 스리랑카의 '캔디안 댄스(Kandyan Dance)' 등 ACC의 수집 및 기증 자료를 만나볼 수 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아시아의 춤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에서 '남아시아 춤의 성소'는 문화전당의 연구 성과와 소장 자료를 활용해 창의적으로 기획한 전시"라며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이 남아시아의 춤 문화를 체험하며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전남문화재단, 청년 문화기획자 모집

내달 7일까지... 지역사회 등 주제

전남문화재단은 전남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각각의 사회적 이슈를 청년들이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6월 7일까지 청년 문화기획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전남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별 연 3백만원의 프로젝트 지원금과 월 활동비 160만원을 5개월간 지원한다.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는 주제는 △전남 22개 시·군, 295개 읍·면·동, 해당 마을 각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지역문제 해결 △국

제적으로 이슈인 ESG 및 사회적 가치 관련 주제 △이웃 간 소통단절 해소, 학교폭력 예방, 야생동물 보호 등이 있다. 1차 서류 전형에 선발된 활동가는 3주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2차 인터뷰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최종 선발된 15명의 청년은 거주·관심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과 사업 수행능력 개발 및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통해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